

# 만화만 창궐하는 어린이잡지들

## 순수교양지는 사라져... 역사탐방·생태전문 등 새로운 아이템도 시도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읽을 것이 흔치 않던 그 시절의 어린이들에게 《어깨동무》 《새소년》 《소년중앙》 같은 어린이 교양잡지들은 자랑삼아 품에 끼고 다니며 읽고, 표지가 해지도록 돌려 보던 귀중한 책이었다. 이 시기에 어린 시절을 보낸 웬만한 어른들의 추억 속에 아직도 뿌듯한 독서 체험으로 남아 있을 이들 잡지들은 이젠 없다. 순수교양잡지들이 초토화된 터에 만화잡지들이 '창궐'한다. 그나마 영리와는 무관한 곳에서 문예잡지 등을 힘겹게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어린이 잡지의 현주소다.

### 80년대 초부터 지형도 바뀌어

어린이 잡지의 지형도가 이런 모양새를 내보이기 시작한 것은 80년대 초. 《새소년》(1964, 대한교과서), 《어깨동무》(1967, 육영재단), 《소년중앙》(1969, 중앙일보사) 등 60년대에 창간돼 선의의 경쟁을 벌이며 전성기를 구가하던 어린이 교양잡지들이 위기를 맞으면서부터다.

대형 판매망을 갖춘 전집류 출판이 가속화되어 어린이들의 읽을거리가 풍성해졌고, 어린이들의 기호가 읽는 것에서 보는 것으로 변했다. 어린이 잡지의 주요 광고주들이 매체를 옮긴 것도 경영을 악화시켰다. 잡지간의 과당경쟁도 어린이 교양잡지의 수명을 단축시켰다.

여기에 컴퓨터 오락이나 게임기 보급의 가속화로 어린이 잡지들이 설 땅은 점점 좁아져 순수교양잡지들은 만화잡지로 대체되



기 시작했다.

82년에 《보물섬》이 창간되면서 《어깨동무》가 휴간에 들어갔고, 89년에는 《새소년》이 폐간되고 《만화왕국》으로 대체됐다. 83년 신문사의 막강한 자본을 바탕으로 창간됐던 《소년경향》도 89년에 폐간했다. 가장 오래 남아 어린이 잡지의 마지막 희망으로 여겨졌던 《소년중앙》도 94년 폐간, 안타까움을 샀다.

결국 80년대 이전에 창간되어 아직까지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순수교양 잡지로는 성서교재간행(주)에서 발간하는 《새벗》만 눈에 띈다. 이밖에 《소년》(가톨릭교단)이나 《어린이 동산》(농민신문사), 《어린이세계》(극동문제연구소) 등 상업성보다는 창간 이념에 충실한 잡지들이 있을 뿐이다. 또

광주에서 아동문학가 박종현씨가 발행하는 《아동문예》나 현재 휴간중인 《어린이 문예》(부산 문화방송) 발행 등 몇 종의 문예잡지들이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 사회 전체가 관심 기울여야

최근 들어 새로운 아이템과 편집으로 새롭게 도전하는 잡지들도 있다. 90년 창간된 월간 《동쪽나라》(동쪽나라)와 《자연의 친구 까치》(웅진출판) 등이 대표적. '글쓰기 교실'이나 역사탐방 등 흥미로운 코너를 통해 독자들의 변화된 기호에 부응하고 있는 《동쪽나라》가 종합지인데 비해 《자연의 친구 까치》는 국내 최초의 '어린이 생태 전문지'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그러나 어린 독자들을 다시 책으로 이끌

겠다는 의욕에도 불구하고 이들 잡지들이 겪는 어려움은 여전하다.

웅진출판사의 유성희씨는 "광고수익이 많은 성인잡지와는 달리 어린이 잡지들은 광고를 많이 기대할 수 없다. 《자연의 친구 까치》는 기존의 판매망을 이용, 겨우 자체 운영이 가능한 실정이다. 서점 판매에만 의존하는 경우는 아무리 좋은 잡지라 하더라도 운영이 힘들다"고 사정을 밝힌다.

단국대 이재철 교수(아동문학평론 발행인)는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질과 수준은 그 사회 전체가 공동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문제"라고 강조하고 "언제까지 우리 아이들을 저질 외국만화 잡지와 외국 잡지에 무방비상태로 노출시켜 놓을 것이냐"고 위기감을 토로한다.

아버지로부터 자식에 이르기까지 오래도록 사랑받는 좋은 잡지를 갖는 것은 여간 큰 기쁨이 아니다. 잡지 편집인 스스로 시대변화와 독자요구에 따라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연령별·분야별 전문화와 세분화 등을 통해 어린이 잡지의 활로를 모색하는 일도 과제로 꼽힌다. 좋은 잡지를 어린이들에게 권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절실하다. 어린이들의 정서와 의식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은 모든 어른들의 몫이다. 어린이 잡지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상업적인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이나 정책적인 배려도 필요하다는 것이 어린이 잡지를 염려하는 많은 사람들의 바람이다.

—박남정 기자

국내최초의 종합출판정보 서비스

# 출판정보

구독료 안내 (주1회 발행)  
6개월 12만원  
12개월 20만원

담당 : 김혜경  
연락처 : Tel (02) 271-0494  
Fax (02) 271-0495

명목가치 22만원, 실물가치 20만원, 효용가치 200만원  
검색프로그램만으로도 돈이 아깝지 않습니다.

「출판정보」는 50개의 일간지와 해외 주요국 저널의 출판관련 기사와 광고를 수록할뿐만 아니라 정책자료, 조사자료 등 발굴정보와 자료도 폭넓게 제공하는 무궁무진한 정보의 광맥입니다. 4개 신문의 구독료나 스크랩하는 인건비정도의 회비로 받아볼수 있는 「출판정보」는 체계화된 정보를 한꺼번에 편안히 앉아서 받아볼수 있는 장점외에 정보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모든 기사를 검색하여 볼수 있는 기사검색프로그램과 검색데이터를 제공해드립니다. 이는 정보의 가치를 최대한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독자분들의 욕구에 부응코자 제공되는 「출판정보」만의 특별한 서비스입니다.

발간형식 : 주1회 (매주 금요일) 판형 및 분량: 4·6배판 180여쪽 발송방법 : 우편발송  
지금 궁금하신 분은 바로 연락주십시오 무료로 1권을 보내드립니다.